
CT 유도하에 시행하는 Liver RF Ablation의 유용성 평가

전북대학교 병원 진단방사선과

김동수, 이원균, 이강우

목 적 : 최근 간 종양의 비 수술적 치료방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있는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이 힘든 원발성 및 전이성 간암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CT 유도하에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2001년 1월에서 2002년 2월까지 본 병원 입원환자 95명의 간의 악성 종양 중에서 종양의 크기가 단일성 결절인 경우 4 cm 이하, 3 cm 이하 다발성 결절인 경우 3~4개 이하로 최종적으로 CT 유도하에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한 5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, 분석 방법으로는 연령, 성별, 진단별, 종양의 크기 및 위치와 갯수, 치료후 추적 검사방법, 병소 상태의 결과 등에 대하여 방사선 판독소견을 기본으로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. 모든 자료와 분석은 SPSS/PC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 하였다.

결 과 : CT 유도하에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한 환자 51명의 간의 악성 종양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 남자 80.4%인 41명, 여자 19.6%로 10명이었으며, 연령분포의 경우 50~59세가 18명(35.3%)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. 초기 진단으로는 간암이 82.4%인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이성간암이 15.7%로 8명, 간내 담관암이 1명이었다. 종양의 갯수와 크기 분석에서는 1개이면서 크기가 2~2.9 cm인 경우가 23.5%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종양의 위치와 갯수의 분석에서는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은 58.8%인 30명이었으며 Seg 6에서 17.6%로 9명, Seg 7, 8에서 13.7%로 각각 7명이었다. 다발성인 경우 위치와 갯수, 크기 모두 41.2%로 따로 분류하였다. 본 병원의 고주파 열치료 후 추적방법에 있어서 1일 후 CT를 단독 또는 초음파와 병행 추적한 경우가 54.9%로 28명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. 6개월 추적에서는 환자의 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추적검사를 시행치 않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T는 41.2%인 21명으로 여전히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. 시행 후 1일 결과에서는 완전 소작이 78.4%인 40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완전 괴사는 9.8%인 5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$P < 0.01$). 그리고 3개월에서는 51명중 37.3%인 19명이 완전 소작되었고 재발 및 새로운 병변의 발생은 23.6%인 12명으로 나타났고 또한 6개월 후에는 51명중 33.3%인 17명이 완전 소작되었고 재발 및 새로운 병변의 발생은 15.7%로 8명으로 나타났다.

결 론 : CT 유도하에 시행하는 고주파 열치료는 병변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적은 점 이외에도 혈관이나 주변장기의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잔류 혹은 재발종양의 치료에 대해서도 반복치료가 가능하며 3 cm 이하의 작은 간 종양의 국소 치료에 있어 효과적이고 유용성이 높은 방법으로 생각된다.